

박하선 “고백, 아동학대 문제 제도적 변화에 도움 되길”

영화 ‘고백’ 사회복지사 ‘오순’ 역할

“아이 키우는 입장…예전보다 더 공감”

“남편 류수영·가족들 늘 응원 큰 힘”

장르물 도전장…“전문직 역할 원해”

“올림이 큰 영화예요. 저희 영화가 제도적인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 영화 ‘고백’으로 배우 박하선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영화의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백’은 7일간 국민 세금 1000원씩 1억원을 요구하는 유괴사건이 일어난 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며 아동학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발한다. 사라진 아이, 그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분노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를 의심하는 경찰, 나타난 아이의 용기 있는 고백을 그리는 범죄 드라마다.

이번 작품은 박하선의 출산 후 첫 복귀작이었다. 그는 “가슴에 단비 같은 작품이었다”며 “일을 너무 하고 싶을 때 들어온 작품이어서 그 자체로 감사했다”고 떠올렸다.

“시나리오를 봤는데 마지막에 ‘고백’ 쓰여있는 게 뭔가 ‘쿵’하는 울림을 받았어요. 사실 저예산 작품이라서 많이 밀리고 얹어질 뻔했는데 계속 기다렸죠. 당시 제가 아이만 돌보고 집에 있을 때라서 복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존감이 낮아 있었죠. 그런데 감

독님이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 경력이 없었다면 찾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죠.”

영화를 본 후에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제 영화를 보고 온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후 처음”이라며 “뭉클했는데, 부족한 모습은 보이더라”고 속스러워했다.

“촬영할 때는 연기에 대한 욕망에 정말 시원하게 연기했어요. 막상 스크린으로 보니 부족한 게 보여 아쉬운데, 그래도 메시지가 분명하고 울림이 있는 영화니 많은 분께 좋은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 학대 받은 사회복지사 ‘오순’으로 연기 변신

박하선은 극 중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아픔을 담고 아동복지사가 된 ‘오순’ 역을 연기했다. 이 작품으로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코리아판타스틱 장편 부문 배우상을 받았다.

‘오순’ 역에 몰입하기 위해 박하선은 연습을 거듭했다. 그는 “(연기가) 간절했던 때였고, 잠을 줄이며 매일 밤 연습했다. 어려운 신은 될 때까지 했다”며 “제가 그동안 안 해왔던 연기라서 더 신나게 할 수 있었다”고 돌아

봤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고백’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하선은 “사실 많이 달라진 게 없어서 속상하다”며 “아이들을 때릴 때가 어디 있나. 언제까지 학대를 받아야 하나”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오순의 대사 중 ‘고장 난 어른’이라는 말이 있다. 폭력의 대물림, 그 악순환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우리가 왜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백”을 2018년 여름에 찍었는데, 그때도 아동학대 이슈가 있어서 ‘미쓰백’, ‘어린 의뢰인’ 등 영화들이 있었어요. 이후 조금은 바뀌나 싶었는데, 최근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매일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바뀐 게 없다는 데 무기력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또 그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동학대를 소재로 하지만 자극적으로 그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저도 자극적으로 그려지는 폭력적인 영화는 잘 못 본다”며 “저희 영화는 보기에 불편하지 않다. 감독님도 아역 배우를 배려하면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박하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 문제에 더 눈길이 갔다. 그는 “아이를 낳으니까 관련 뉴스가 더 눈에 들어오고 날 잊지 않게끔”이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또래 아이들이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저는 아이를 혼자 놔두고 나간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이 들죠. 뉴스를 보면 계속 생각이 나서 잘 보지는 못해요. 예전보다 확실히 더 공감이 가죠.”

“산후조리원·며느라기” 있던 흥행…“남편 류수영, 늘 응원”

박하선은 최근 드라마 ‘산후조리원’, ‘며느라기’ 등 작품들로 가족 이야기를 그리며 여성 시청자들의 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그는 “여성 팬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셔서 뿌듯하다.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들어오는 작품의 결이 변한 게 있다”며 “엄마, 며느리 등 가족 이야기를 재미있어하고 잘할 수 있는 장르가 된 것도 있다. 오히려 (작품 범위는) 더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인 배우 류수영을 비롯한 가족들의 응援도 큰 힘이 됐다. 그는 “서로 일하면 응원해준다. 일이 있으면 서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양가도 ‘일은 때가 있다’며 많이 도와 주신다. 가족들의 도움이 크다”며 “오빠도 바빠져서 좋다. 예능도 하고 작품도 들어갔다. 배우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더 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료 배우로서 서로 자극도 된다.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때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었더니, 대본을 1000번 봤다더라.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밤새며 봤다고 했다. 이후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저도 밤마다 대본을 보게 됐다. 사실 저는 예전에 대본대로만 했는데, 자기 전까지 대본을 보고 계속 파고드니까 연기가 아닌 연기가 나오더라”고 웃었다.

다음 작품은 장르물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하선은 “기훈, 미훈을 따지지 않는 장르물을 하고 싶다. 아직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시트콤도 할 수 있다.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가 작품을 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미다. “재미가 1번이다.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한다”며 “영도다리” 이후 한 동안 못 찍었는데 독립영화도 좋아한다. 아직 개봉 안 한 독립영화 ‘첫 번째 아이’도 찍었다. 좋은 영화면 하고 싶다”고 말했다.
“4년의 공백이 컸어요. 20대 때는 일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감사하죠.

이제훈·이숨 ‘모범택시’, 4월 첫 방송…‘펜트하우스2’ 후속

동명의 웹툰 원작…‘닥터탐정’ 박준우 감독



SBS TV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16일 SBS에 따르면 ‘모범택시’는 오는 4월9일 첫 방송으로 편성을 확정했다.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하 한 통이면 오케이”를 내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닥터탐정’

의 박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 ‘조작된 도시’, ‘자칼이 운다’ 등의 오상호 작가가 대본을 집필했다.

이와 함께 이제훈, 이숨, 김의성, 이나은, 차지연, 장혁진, 배우람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로 기대감을 높인다.

이제훈은 특수부대 출신이자 무지개 운수의 택시기사 ‘김도기’ 역을 맡아 유일무이한 K-다크히어로를 선보인다. 이숨은 불도저처럼 정의를 쫓는 열혈탐정 ‘강하나’ 역으로 무지개 운수와 각을 세우며 긴장감을 선사한다.

김의성은 가해자의 단죄를 진두지휘하는 무지개 운수 대표 ‘장성철’ 역을 맡아 묵직한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이나은은 무지개 운수 소속 해커이자 신상털이에 탁월한 실력을 지닌 ‘고은’ 역을 맡았다.

‘모범택시’는 오는 19일 첫 방송되는 ‘펜트하우스2’의 후속이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편에서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을 무력으로 단죄하는 이야기를 그리면서 주망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설경구·변요한 ‘자산어보’, 다음달 개봉

이준익 감독 신작

이준익 감독 신작으로 배우 설경구와 변요한 주연의 영화 ‘자산어보’가 오는 3월31일에 개봉한다.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은 17일 ‘자산어보’의 3월31일 개봉일 소식과 함께 포스터를 공개했다.

‘자산어보’는 흑산으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과 바다를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 ‘장대’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벗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사도’, ‘동주’, ‘박열’ 등의 작품으로 역사 속 인물을 새롭게 조명해온 시대극의 대가 이준익 감독의 14번째 작품이다.

이준익 감독은 ‘자산어보’에서 조선 시대의 학자 ‘정약전’을 조명한다. ‘정약전’이 집필한 어류학서 ‘자산어보’ 서문에 등장하는 ‘장대’와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공감과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소정 “싱어게인” 실수, 이선희가 대기실 찾아와 위로

방송 뒷이야기 공개

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이소정이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무명가수전’ 방송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이소정은 17일 방송된 SBS FM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FM’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해 ‘싱어게인’ 방송 후 근황에 대해 “바빠져서 너무 좋다”며 “사람들이 알아보고 되짚어 서비스도 됐다”고 전했다.

8일 막을 내린 ‘싱어게인’에서 최종 4위에 오른 이소정은 ‘싱어게인’ 출연 중 불렀던 노래들을 한 소절씩 불렀다.

이후 이소정은 ‘주량이 여섯 병이 맞는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아니라며 다시 병으로 정정했다. 이어 “예전 같지 않다”고 덧붙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소정은 ‘싱어게인’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가수 이선희의 심사평을 떠올렸다.

이소정은 ‘싱어게인’ 결승전에서 가사 실수로 주저앉았다. 이에 이선희는 “집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웃어도 된다”고 이소정을 위로했다.

이소정은 당시 “파이널 무대에서 부담감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생방송에

서 주저앉았었다”며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백지상태가 돼 아무 생각이 안 났다. 녹화가 끝나고 나서 (이선희가) 대기실에 왔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절대로 이걸 트라우마처럼 생각하지 말라. 누구나 실수를 한다. 노래를 오래 할 것이지 않나. 과정이라고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소정은 당시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며 “이걸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처음으로 후렴구를 다시 불러봤다”며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승환·잔나비·서태지, 안방에서 만난다…‘집콕콘서트’

국내 대표 뮤지션의 라이브 콘서트 실황 세 편을 안방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MBC는 17일 가수 이승환, 잔나비, 서태지를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집콕콘서트’를 특집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콕콘서트’는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고른 역대급 공연을 방송한다.

‘공연의 신’ 이승환이 포문을 연다. 3월1일 오후 10시40분에 이승환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무적전설’을 100분간의 하이라이트로 만나볼 수 있다.

본 적 없는 스케일의 레이저 효과와 공포를 가로지르는 무대 장치로 불거리를 자랑하는 ‘무적전설’은 대한민국 공연의 교과서를 만든 이승환의 노하우가 집약된 최고의 콘서트로 평가받고 있다. 발라드, 록, 댄스,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이승환의 무대 기대감을 모은다. 3월8일 오후 10시40분에는 각종 축

제 섬의 1순위를 기록하며 ‘대세 밴드’로 자리매김한 잔나비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전 회차 전석 매진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단독 콘서트 ‘판타스틱 울드패션드’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던 2020 전국투어 ‘년센스2’의 하이라이트를 재구성한 특집 공연 영상이다.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든 ‘문화대통령’ 서태지다. 3월15일 오후 10시40분에 예정된 이번 집콕콘서트는 그의 9집 활동 당시 진행한 전국투어 ‘화이트 나이트’를 다시 만날 절호의 기회다.

총 50대의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스펙터클한 영상과 서태지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은 안방 1열의 시청자들에게까지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장의 열기가 그리운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평



소 공연 예매 후 가졌던 설렘과 기대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집콕콘서트 키트’를 제작, SNS를 통해 선보이는 이벤트에 참여한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MBC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지된다.